미세먼지 문제, 여전히 논란이 계속 되는 이유

강 찬 수
(중앙일보 환경팀장·논설위원)

“중국발이냐, 국내산이냐”“좋아지고 있나, 악화되고 있나.”“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수준인가냐, 시민들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미세먼지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마다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언론도 그때그때 다른 내용을 보도한다. 왜 그럴까. 다음 글들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전문가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 알지 못하거니와, 어떤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알기 힘들다. (웬델 베리,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 없다』)
●전문가의 시대라고 하지만 각기 자신의 분야에서만 위험을 인식할 뿐, 그 문제들이 모두 적용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상황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기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다. 정말 무엇이든 말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기자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줄 전문가를 찾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을 찾으면 인터뷰를 위해 카메라 기자를 대동하고 방문한다. (버나드 골드버그, 『뉴스의 속임수』)
●전문가란 특정분야,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N. 보르)
●전문가들은 그들이 아는 정보를 당신이 모른다는 사실에 기대고 있는 족속이다. 전문가란 존재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시인할 때조차 이기적인 행동양식을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티븐 레빗 & 스티븐 더브너, 『괴짜 경제학』)
●편견 없는 전문가란 허구다. 우리는 모두 가치와 가설과 보상이라는 문맥 안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정신적 지도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통해 세계를 인지한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 안나 라페, 『희망의 경계』)

미세먼지와 관련, 전문가 기고나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전문가들은 과학적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만 내세웠다. 나중에 잘못이 밝혀지더라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일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서로 학문적인 면에서 조차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체험했다.
언론 역시도 양비론, 양시론에 맞춰 전체 전문가 집단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했다. 비과학적인 주장도 제대로 된 검증 노력 없이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

미세먼지 문제도 하나 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 자기 연구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의 장래가 어디에 달려있는지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아닌지 시민들은 의심한다. 오죽하면 주부들이 미세먼지 예보를 한다고 덤벼들겠는가.
모든 전문가가 동일한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어떤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는지, 어떤 사항에는 이견이 있는 지는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한다. 최소한의 학문적인 양심은 유지해

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에 반영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1995년까지 총부유먼지(TSP)를 다뤘고, 1995~2015년에는 미세먼지(PM10)를 다뤘고, 지금은 초미세먼지(PM2.5)를 다루는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최소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세먼지 오염은 10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최근 5년 사이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맑은 날과 먼지 많은 날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시민들은 미세먼지 오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침저녁 미세먼지 예보 때문에 시민들은 늘 머릿속에 미세먼지 문제가 들어있다.
●오염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 초미세먼지 기준치조차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세먼지 양은 줄었지만, 줄어든 양에 비례해 상황이 좋아졌다고 볼 수 없다.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을 수 있다. 축구공 2개와 테니스 공 8개가 있다가, 축구공 2개가 사라지면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지만 입자개수는 80% 수준을 유지한다.
●중국 오염 배출이 최근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중국 영향은 분명 있다. 하지만 100% 중국 탓은 아니다. 그때그때 다르다.
●배출량 통계로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아직도 있다. 북한일 수도 있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규모 업체, 아파트 주택 등의 난방보일러, 농가가 밭에 뿌리는 축산분뇨 탓일 수도 있다. 연구를 해야 통계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다.